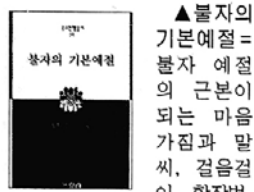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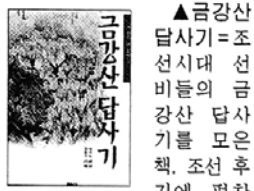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 불자의 기본예절 = 불자 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 합장법, 절하는 법, 사찰에서의 예절, 법문 듣는 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저자 일타스님은 "불교예절은 곧 '성불'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수행요법"이라고 말한다. <효림, 3천5백원>



▲ 금강산 답사기 =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를 모은 책. 조선 후기에 편찬된 <와유록>을 비롯해 여러 개인 문집에 실려있는 것들을 작가, 계절, 시기 등에서 의미가 있는 8개 작품을 연대순으로 번역했다. 이곡의 동유기,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등 모두 8편의 글이 실려있다. <해안, 1만원>



▲ 신과학으로 풀어보는 피라미드 에너지 = 현대 과학자의 시각에서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풀어낸 책. 피라미드 에너지의 현상과 근원을 신과학의 시각으로 추적하면서 국내외의 관련자료와 주장을 비교·비판하고, 과학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주>한마음에너지과학연구소 신과학정보센터장 허창욱 박사. <모색, 9천원>

'서장' 읽으면 선불교 보인다

지상스님 번역 '서장'

선방 수좌들간에는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책은 놓이지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사스님들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장>. 불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절차나 단계를 전혀 두지 않고 근원을 바로 보게 하는 대혜스님(1089~1163)의 날카로운 가르침은 이 책을 '천고(天古)의 절서(絶書)'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게 한다.

불광출판부의 '불광선문총서' 10권째인 <서장>은 선불교의 고전을 대하는 한 학승의 열정이 단연 돋보이는 책. 한문원문에 토를 달고,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꼼꼼하게 주해를 달아 놓았다. 기존에 번역돼 나와 있는 <서장>보다 분량과 주해가 두 배 더 든다. 역자는 통도사에서 교선을 공부한 뒤, 법주사와 직지사 강원에서 중강을 역임하고 현재 은혜사 승가대학원에서 수학중인 지상스님. 감수는 지도교수인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이 맡았다.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서장>

대혜스님 편지글 모음
원문·번역문 한눈에
여실붙어 내용 이해 도와

번역서는 모두 세 종류, 이중 두 종은 단순히 현토만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번역문을 앞에 실고 원문을 뒤에 첨부한 형태다. 불광출판부의 <서장>이 이들과 다른 것은 현토한 원문 밑에 바로 번역문을 실어 원문과 대조해가며 읽을 수 있다는 점. 또 필요한 경우 번역문 아래 내용을 상세히 풀어놓은 '해설'과 편지글이 담고 있는 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원문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의 훈과 운, 부수와 획수를 모두 정리한 것도 다른 번역서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대혜스님은 좌선의 고요함에만 빠져있는 목조선을 배격하고, 공안을 참구해 깨달음에 들어가는 간화선을



정착시킨 중국 송대 선불교의 종홍조다. <서장>은 대혜스님이 주로 사대 부들에게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대답해준 편지글로서, 그의 제자 혜연이 기록하고 황문창이 중편한 것으로, <대혜어록> 30권 가운데 25~30권에 해당한다. 수록된 62편의 서신 가운데에는 승려 2인, 여성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식인이자 관료와 주고받은 편지글이다. 본래 제목은 <대혜보각선사서(書)>



◇ 지상스님

로 참선의 지도서이자 선문의 요지를 철저하게 설명해 놓아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왔을 정도다.

스님은 <서장>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벼슬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백가의 서(書)를 자유자재하게 이끌어오고, 팔만대장경 속의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들을 거침없이 활용하고 있다. "익숙한 것은 서를 거라 하라, 그리고 서를 익숙하게 하라. 수행이란 한마디로 그것밖에 없다"고 스님은 이 책에서 말한다.

지상스님은 책 후기에 "공부하는 스님들은 물론 일반 불자들도 이 책을 통해 선의 참다운 맛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간의미를 밝혔다. 값 1만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유물 보는 안목 '쑥쑥'

황수영 전집 셋째권

'한국의 불교공예·탑파'



<한국의 불상>(상·하)과 <한국의 불교미술>에 이은 '황수영 전집'의 세 번째 권 <한국의 불교 공예·탑파>(해안 권)가 나왔다.

이 책은 주로 미술사 각 부분의 중요 작품에 대한 총 101편에 달하는 방대한 개별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 탑·사리장엄구·석등·부도·불교공예·도자기·금속제품·사경·불화 등을 5부로 나누어 실었다. 이와 함께 각 유물에 대한 2백4장의 도판사진을 함께 수록해 놓았다. 양식사에 치중하고 있는 미술사 관련 책들과는 달리 문화재 자체의 유래와 조성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탑파편에서는 시원 양식과 일반형 양식, 특수 양식으로 분류하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탑파의 특징과 탑 속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다룬 것이 눈에 띄어 불만이다. 금속공예 편에서는 사찰에서 전래하는 향안을 일본 작품인 악구(鑿口)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것과의 차별을 논한 것과, 사경 편에서 고대의 사경 중 특히 금은자경(金銀字經) 가운데 특기되어야 할 고려시대의 금은자재장경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값 5만원.

한명우 기자

오늘을 사는 지혜 禪에서 나온다

항봉스님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당당하게 도가 있고, 화내는 것도 버릇인 줄 알아 참아 이기는데 도가 있고, 소유욕을 적게 부려 만족을 삼는데 도가 있고, 좋은 벗,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해 배우는데 도가 있다."

오래동안 인도, 티베트, 중국 등지에서 불교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항봉스님이 펴낸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말안 권)는 책 제목 그대로가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다. 항봉스님은 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선

이 복잡미묘한 현실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된 생각과 닫힌 마음으로 선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 가치를 모르며, 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임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을 경계한다.

이 책의 중심은 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찾는 데 있다. 티베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며, 중국 소림사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등 저자 자신이 체험한



일상생활에서 얻은 깨달음 등을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그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의 주인임을 말한다.

하지만 막연히 선을 말하지는 않는다. 달마에서 홍인까지 선의 역사를 더듬고, 중국과 인도 선불교의 특징 및 선과 도가사상의 관계를 살피는 등 선과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놓아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마조와 조주스님의 일화를 별도의 장으로 마련해 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참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값 8천5백원. 한명우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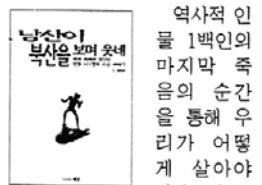
책방 여시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용	효림
2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등쪽나라
3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인
4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음사
5	영원한 자유	장 경 각	백련사
6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시	정 하
7	한국불교 기도서	정성운의	불교시대사
8	삼과 명상	길 연	불일출판사
9	소원성취 기도법	정우석의	정우석적
10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 사 성	장 승

구입문의: (02)737-0695

'남산이 복산을 보여...'

개정판 나왔다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한 맹인자서의 <남산이 복산을 보여...>(세운 권)가 표지를 바꾸고 내용을 보강해 새롭게 출간됐다.

불교의 죽음관, 칸트의 마지막 말의 의미 등이 추가됐다. 값 3천원.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정인스님 지음

부처님 열두제자 행장 자세하게



부처님 법을 첫번째로 받은 마하가섭,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보필했다는 아난과 부처님의 아들인 라후라 등 12인의 부처님 직제제자들. 그들이 꿈꾼 이상은 무엇이었으며 부처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펴낸 <부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열두제자>는 이들 제자들의 행장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재현해 놓은 책. 한역 <아함경>과 <율장>을 기초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남방 팔리어 <아함경>을 비롯한 전설·설화 자료들을 참조해 단순히 제자들의 일대기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불교적 신앙심을 드러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여래, 9천원>

화제의 책

신역 금강경

정용수 지음

이야기체로 쉽게 풀어쓴 금강경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도 읽는 이가 많지 않거나 읽어도 그 참맛을 알기 어렵다면 가치는 줄어 들기 마련이다. 경전의 본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 의미를 재미있게 엮어 낸다면 읽는 사람에게는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불교대학 정용수 교수가 펴낸 <신역 금강경>은 바로 그런 책이다. 원문과 주해를 제시하고 그 뜻을 마치 이야기하듯 풀어놓았다. 책 제목 앞에 '신역(新譯)'이라는 말을 붙인 것도 짧은 문장과 소박한 비유를 통해 <금강경>의 참맛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번역에 있어 과감히 현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우리출판사, 1만2천원>

화제의 책

불교란 무엇인가

데미언 키언 지음

불교가 심오하고 지혜로운 가담



불교에 대해 서양인이 느끼는 당혹감과 의문점을 기초로 해서 삶에 대한 불교의 해석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쉽게 설명한 책이다. 붓다의 생애, 업과 환생, 대승불교, 명상, 서양의 불교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불교를 '가장 아름답고 심오하며 지혜가 있는 하나의 체계'라는 논리로 관통시킨다. 붓다가 말한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의 교훈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끝까지 따라 다닌다. 불교에 대한 시각도 어느 한 양식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다.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 인도 종교 강사인 저자 데미언 키언은 불교를 통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까지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문선사, 6천원>

대원불교대학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6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 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1999학년도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모집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사미니과 00명
2. 시험과목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3. 입학자격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생인 경우 2년 이상 휴학한 스님
4.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은사스님 추천서 1통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사진(반명함판 3x4) 3매
5. 준비물 오조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6. 시험일시 1999년 1월 27일(음 12월 10일)
7. 도착일시 1999년 1월 26일(음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8. 문의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증무소 전화 : (042)825-2570

● 교통편

· 대전본역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동학사 주차장에서 오후 2시부터 불교운행 함.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연